

지식경제의 특징

안 명 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단행본 20페이지)

새 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사회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변혁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섰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형태인 지식경제가 출현하고 경제의 지식화가 세계적추세로 되였다.

지식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응용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경제로서 이전 시대의 경제와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지식경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지식과 정보를 주요생산자원으로,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 기본수단으로 하는 경제라는데 있다.

생산이 진행되자면 로동력을 가진 사람, 로동수단, 로동대상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로동력과 로동수단, 로동대상의 결합방식과 그 비중문제는 생산력발전정도에 따라 각이하게 이루어진다.

인류사회발전의 첫 시기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힘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것을 얼마간 대신할수 있는 유치한 생산도구를 만들어 로동대상에 접촉하였다.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사회로,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면 생산력발전과 더불어 로동력과 로동수단, 로동대상에서는 현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결합방식도 크게 개선되였다.

기계제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로동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로동수단, 로동대상이 노는 역할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었

다. 기계제산업시대에 사람들은 생산활동에서 자기의 육체적힘과 함께 대량적인 생산수단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계제산업시대의 경제를 자연부원을 대량소모하는 경제라고도 말할수 있다.

기계제산업시대의 경제가 의거하는 자연부원은 그 대량적인 소모과정에 점차 고갈되였다. 자연부원의 대량소모는 필연적으로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되였다.

자연부원소모위주의 경제의 이러한 제한성은 새로운 생산자원인 지식과 정보에 의거하는 지식경제에 이행하면서 극복되였다.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하면서 최첨단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정에 자연부원의 대량적소모를 인공적으로 보충할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대량 생산되였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에 의거하는 새로운 생산방법, 생산공정, 정보설비들이 창안제작되면서 자연부원의 고갈로 인한 생산적난관이 극복되고 지식과 정보를 생산자원으로 하여 경제가 발전하는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과학기술지식과 정보를 주요생산자원으로 하는 지식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지식경제가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그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담보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착취적본성으로 하여 과학기술지식과 정보가 경제의 끊임없는 발전을 가져올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과학기술지식과 정보가 지식경제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는 무진장한 자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놀게 된다.

지식경제의 특징은 다음으로 지능로동자들

이 생산의 기본담당자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각이한 경제부문들에서 생산의 기본담당자가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었다.

기계제산업시대에 생산의 기본담당자가 육체로동자들로 된 기본원인은 이 시기 기계기술의 발전수준과 관련된다.

기계제산업시대에 작업장치, 전도장치, 동력장치로 구성된 기계가 생산에 리용되면서 사람들의 육체로동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기계를 생산에 대대적으로 리용하면서 육체적부담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기계 그 자체는 사람들의 육체적힘을 떠나서 그 가동을 생각할수 없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과거로동의 산물인 기계가 육체로동을 하는 근로자의 산로동과 결합될 때에만 생산에서 은을 낼수 있었다. 이로부터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육체로동자들의 많은 산로동의 지출을 떠난 생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으며 이것은 생산에서 육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노는 역할을 증대시키고 그 대렬의 급격한 장성을 가져왔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물질적생산 부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것이 정신로동,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등장한것이다.

경제의 많은 부문들에서 지능로동자대렬이 매우 빨리 늘어나고 그들이 로동자 구성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식경제에서 생산의 기본담당자로 등장하게 된것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사회적생산의 기술적기초가 달라지고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이 생산에 도입된것과 관련된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사회적생산의 기술적기초가 기계기술이었다. 당시에는 과학

기술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한것으로 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은 주로 기계기술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이 기계기술에 기초한 생산으로 이행한것은 로동수단과 생산력 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기계기술수단이 종전에 사람이 수행하던 동력기능을 비롯한 일련의 로동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생산공정이 기계기술에 기초하여 편성되게 됨으로써 생산력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기계기술수단은 사람의 육체적기능을 주로 대신하였으며 조종기능과 같은 사람의 정신적, 지능로동기능은 대신하지 못하였다.

기계제산업시대와는 달리 지식경제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비약적발전으로 사람의 정신적기능의 일부를 감당하는 최첨단과학기술인 정보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생산의 기술적기초가 새롭게 갱신되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로동수단의 구조와 질적수준, 생산공정의 편성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작업기와 동력기, 전도장치로 이루어진 종래의 로동수단에 조종기능이 첨가되고 생산공정은 정보기술에 기초한 능률적인 생산공정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CNC기계,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수단들이 개발되고 생산의 컴퓨터화가 실현되게 되었다. 지식경제시대에 정보화, 현대화된 기술수단들과 생산공정은 현대적 과학기술지식에 의거하는 지능로동이 아니고서는 다룰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보산업시대에는 힘든 육체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의 대렬보다 지능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렬이 빨리 늘어나게 되었으며 그들이 생산의 기본담당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지식경제에서 생산의 기본담당자로 등장하고있는 지능로동자들의 로동은 이전 시대의 지능로동과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지식경제에서 생산의 기본 담당자로 등장하고있는 지능로동자들의 로동이 최첨단과학기술을 체현한 로동이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지능로동의 원천으로 되고있는 지적능력은 생산실천과정에 체득한 경험적지식에 의하여 키워질수도 있고 교육과 과학연구활동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과학지식에 의하여 키워질수도 있다.

지적능력은 사회발전의 초기에 생산실천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적지식에 의하여 키워졌다.

그후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나가는 과정에 지적능력은 교육과 과학연구활동과정을 통하여 체득한 과학지식에 의하여 주로 키워지게 되었다.

과학지식에 의하여 키워진 지적능력은 경험적지식으로 키워진 지적능력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지능이다. 그것은 교육과 과학연구사업과정에 얻어진 과학지식이 여러 세대를 거쳐 인류가 이룩한 과학지식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담고있으며 원리적으로 담보되어있는 지식이기때문이다. 그런것만큼 과학지식에 의하여 키워진 지적능력의 소비과정으로서의 지능로동은 지식집약형로동으로서 높은 수준의 지능로동이다.

경험적지식과 과학지식에 의거하는 지능로동은 생산력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과학지식에 의거하는 지능로동을 하는 일부 지식층들은 아직 과학발전수준이 높지 못하고 생산과 과학의 련계가 밀접하지 못한 조건에서 생산공정밖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였으며 일부 경험적지식에 의거하여 지능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생산공정에서 주로 기계체계의 운전, 감시, 수리 등에 종사하였다.

지식경제시대에 지능로동은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체현한 로동으로서 그 담당자

는 전문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층들이다.

그것은 또한 지식경제에서 생산의 기본 담당자로 등장하고있는 지능로동자들의 로동이 육체로동에 비할바없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로동이라는데 있다.

지능로동이 육체로동에 비할바없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물질적재부창조에서 제한성이 없는것과 관련된다.

육체로동은 물질적재부창조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물질적재부창조에서 육체로동의 제한성은 육체적힘의 한계로부터 제기된다. 사람의 로동력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육체적힘은 그것이 소비되는 과정에 신체구조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들의 육체적힘은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에 적지 않게 의존한다. 사람들은 신체구조적조건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만 육체적힘을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지능로동은 물질적재부창조에서 한계가 없다. 사람의 지적능력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며 여기에 비례하여 지능로동의 질적수준도 무한히 증대된다. 사람들의 지적능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지능로동의 질적수준이 증대될수록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되며 이 과정에 새로운 물질적재부가 많이 창조되게 된다.

지능로동이 육체로동에 비하여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높은 생산성을 낼수 있는 과학기술과 설비들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경험적지식에 의거하여 지능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수공업적기술과 수공업적도구가 개발리용된다. 과학기술지식에 의거하는 지능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높지 못할 때에는 사람의 육체로동을 대신하는 기계설비들

이 창안제작되어 생산에 리용된다. 정보산업시대의 지능로동은 첨단과학기술지식에 의거하는것으로 하여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까지도 대신하는 정보설비와 같은 기술수단들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기계기술수단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높은 생산성을 이룩할수 있다.

지능로동이 육체로동에 비하여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사회적분업구조,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생산성제고의 물질기술적전제조건을 마련하기때문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은 사회적분업이 확대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산업구조와 직종의 급속한 변화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지능로동은 육체적힘이 미치는 영역에서만 생산성제고의 물질기술적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육체로동과는 달리 과학기술지식에 기초하여 제한없이 사회적분업을 확대한다.

지능로동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육체로동의 분화에 기초한 산업구조대신에 새로운 정보산업부문들을 출현시키고 이미 있던

산업부문들의 구조도 끊임없이 개선한다.

지능로동에 의하여 하드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처리산업 등 정보산업구조가 새롭게 대대적으로 형성되고 그 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전반적산업구조에서 중심적위치에 오르고있다. 그리고 지능로동에 의하여 개발된 최신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기존산업부문들의 내부구조와 생산기술공정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고 전사회적으로 새로운 직종들이 급속도로 생겨나는 반면에 육체로동 및 기존기술과 관련된 직종들이 대량적으로 없어지고있다.

지능로동에 의하여 정보산업구조가 더욱더 다면화되고 전반적산업구조가 정보기술에 기초하여 재편성되고있는 환경은 로동생산능률장성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제품의 질제고를 가져오고있다.

우리는 새 세기,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유형인 지식경제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